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⑥

圓照淸淨覺相 淸淨覺相卽是心 照卽觀也
원조청정각상 청정각상즉시심 조즉관야
心卽是佛 念佛卽是觀佛 觀佛卽是觀心
심즉시불 념불즉시관불 관불즉시관심
所以說 看話頭
소이설 간화두
或者是說 看念佛是誰 就是觀心
혹자시설 간념불시수 취시관심
卽是觀照自心淸淨覺體
즉시관조자심청정각체
卽是觀照自性佛
즉시관조자성불

원만하게 맑고 깨끗한 깨달음의 자리를 비춘다 하는데 청정각상이란 곧 마음이니 비춤은 곧 관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염불이란 곧 관불이며 관불이란 곧 관심이다.

그러기에 화두를 보라고 설한 것이다.

어떤 이는 부처를 생각하는게 누구인지 보라고 했는데 이는 관심을 말함이다.

곧 이 자심이 본래로 청정한 깨달음의 당체임을 관조함이다.

곧 자기 성품의 부처, 자성 본래불을 관조하는 것이다.

心卽性 卽覺卽佛 無有形相方所
심즉성 즉각즉불 무유형상방소
了不可得 淸淨本然 周徧法界 不出不入

석고봉조사운 학자능간개화두

다시 빈틈없이 끊이지 않게 평안하고 고요히, 담담히 공적하게 비춰보면

곧바로 오온이 다 공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공적하여 마침내 한가지 일도 없이된다.

밤 낮으로 하루종일 행주좌와가 여여부동하매 날이 가고 공력이 깊어져 견성성불케 되니 고통은 사라지고 자성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게 된다.

옛날 고봉조사가 이르기를 공부하는 이는 화두 살피기를,

如投一片瓦塊在萬丈深潭 直下落底
여투일편와괴재만장심담 직하락저
若七日不得開悟 當截取老僧頭去
약칠일부득개오 당절취로승두거
同參們 這是過來人的話
동참문 저시과래인적화
是眞語實語 不是騙人的誑語啊
시진어실어 불시편인적광어아
然而 爲什麼 現代的人 看話頭的多
연이 위십마 현대적인 간화두적다

마치 한개의 기와 쪽을 만길 깊은 못속에 던지면 곧바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같이 하되

만약 이와같이 일주일을 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마땅히 노승의 머리를 잘라가도 된다고 하였다.

동참하는 사람들이여 이 지나간 사람의 말을 참되고 실다운 말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헛소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화두를 드는 이는 많은데

而悟道的人 沒有幾箇呢
이오도적인 몰유기개니
這箇由于現代的人 根器不及古人
저개유우현대적인 근기불급고인
亦由學者 對參禪看話頭的理路
역유학자 대참선간화두적리로
多是沒有摸清
다시몰유모청
有的人 東參西訪 南奔北走
유적인 동참서방 남분북주

깨닫는 사람은 적단말인가.

이는 현대인의 근기가 옛사람에 미치지 못함 때문이요

또한 학인들이 참선을 대함에 화두의 이로를 볼뿐

흔히 청정한 마음자리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이는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집적대며 싸돌아 다닌다.

龍眼

"육근을 다 거둬들여 한 생각 쫓으면 생각여읜 청정한 마음을 볼수 있어"

료불가득 청정본연 주편법계 불출불입
無往無來 就是本來現成的淸淨法身佛
무왕무래 취시본래현성적청정법신불
行人都攝六根 從一念始生之處看去
행인도섭육근 종일념시생지처간거
照顧此一話頭 看到離心的淸淨自心
조고차일화두 간도리심적청정자심

마음이란 곧 성품이다. 깨달음이요 부처이다. 형상과 방향 장소가 없으므로

마침내 얻을 수 없고 청정 그대로요 법계에 두루 편만하니 나옴도 아니요 들어감도 아니다.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본래부터 그렇게 드러난 청정법신불인 것이다.

수행인은 육근을 다 거둬들여 한 생각이 비롯되는 곳을 쫓아 살펴보고

한 화두를 돌이켜 비추면 생각을 여읜 청정한 제 마음을 보기에 이른다.

再綿綿密密 恬恬淡淡 寂而照之
재면면밀밀 염염담담 적이조지
直下五蘊皆空 身心俱寂 了無一事
직하오온개공 신심구적 료무일사
從此晝夜六時 行住坐臥 如如不動
종차주야육시 행주좌와 여여부동
日久功深 見性成佛 苦厄度盡
일구공심 견성성불 고액도진
昔高峯祖師云 學者能看箇話頭
而悟道的人 沒有幾箇呢
이오도적인 몰유기개니
這箇由于現代的人 根器不及古人
저개유우현대적인 근기불급고인
亦由學者 對參禪看話頭的理路
역유학자 대참선간화두적리로
多是沒有摸清
다시몰유모청
有的人 東參西訪 南奔北走
유적인 동참서방 남분북주

깨닫는 사람은 적단말인가.

이는 현대인의 근기가 옛사람에 미치지 못함 때문이요

또한 학인들이 참선을 대함에 화두의 이로를 볼뿐

흔히 청정한 마음자리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이는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집적대며 싸돌아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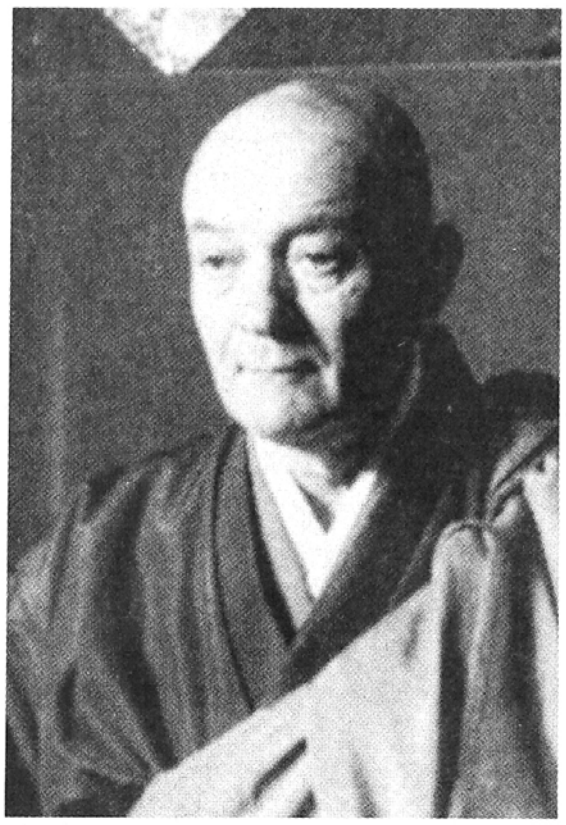
龍眼

★ 여름특집

수행은 내재된 불성찾기

자기를 의식하는 것마저 버려야 번뇌서 벗어나

'내가 수행하고 있다' '꼭 이루어야지' 집착·강박관념등 생각의 방황 일으켜



존 다이도 도리 〈美 뉴욕 선산사원 원장〉

불교를 배우고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행자의 마음에서 신심이 자연스럽게 넘쳐흐르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쳐 흐른다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대상도 마음 속에 담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이러한 신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수행자는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앉아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앉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른 자세를 통해 얻은 자연스러움은 반드시 평온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세를 취하고 편안함을 느낀면서, 만약 다리가 결리는 등 육체의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고 평온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시작한 애초부터 등을 굽힌다든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리고 머리를 갸웃거리는 것은 올바르게 앉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자연스러운 자세는 반드시 곧은 자세를 요구합니다. 가슴을 지나치게 내밀어 등을 굽게 만들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등의 상태는 결코 자연스런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자세를 갖추는 동안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가꾸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 어떠한 의식 혹은 의도를 품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은 더욱 더 복잡해 지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이 혼돈스럽고 방황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다른 사실에 대한 집착과 사고의 방황일 것입니다. 망상은 망상을 낳습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야차와 같이 끊임없이 돌아 가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망상이 집착과 사고의 방황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망상과 그로인해 생겨난 집착과 사고의 방황을 자연스런 형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황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강한 신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신심이 자연스럽게 넘쳐흐른 상태로 다가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특별한 명상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생각의 방황을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고의 방황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생각'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상을 시작할 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분명 어떤 사고의 방황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물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역시 연이어 나타난 생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그 생각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 사고의 방황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고의 방황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쉽게 얻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란 성공에 도달하기까지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이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행에는 성공적인 결론이란 애초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분명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는 성공과 실패에도 얽매이지 말고 나아가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패배주의자의 태도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며, 완벽한 성공은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냐'고 물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노력한다면, 한편으로 여러분은 '성공'이란 단어에 대해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결국 '집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성공'이며 '자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번뇌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연스런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성을 자연스러움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움이란 여러분의 심상의 자연스러움, 바로 불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명상을 통해 불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불성을 깨칠 수 있기는 합니다. 자신의 불성은 바로 여러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상이 불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느순간 여러분이 불성을 보았다고 해서 명상을 그만 두겠지요. 그러나 그순간부터 여러분은 또다시 망상과 집착에 시달리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명상이란 불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가깝게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교설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지혜도 없고 집착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새겨둡시다. 수행이란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다리가 절려오고 등이 굳는 등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수행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해 여러분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불성을 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래부터 공한 것이고 불성 그자체에는 어떤 고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력

· 미국에서 태어났다. 선산사원에서 일본선불교의 참선과 명상 등의 수행법과 법고치는 법, 불교식 장례법 등가 같이 불교의식을 미국인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화두를 모아 〈허공에서 만나는 화살 두 대〉등의 화두집을 발간했다.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경전강독=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 ①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 ②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 장 金 月 雲

대 원 불 교 대 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 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교 과 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Ⅰ
연구과정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